

#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

- 기독교 농촌운동을 중심으로

홍성표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기독교 사회운동
- III.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
- IV. 196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4.03>

\* 이 글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기념사업특별위원회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국기독교사회운동사 제4차 학술심포지엄 『사회신조 채택 9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 ABSTRACT •

---

The Meaning and Tasks of the Christian Social Movement  
in 1945-1960s After Liberation:  
Focused on the Christian Rural Movement

Visiting Prof., Hong, Seongpyo (Yonsei University)

The Christian community, which began to reflect on the shock of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was generally recognized as divided into progress and conservatives through opposition to the Korea-Japan agreement, condemnation of the June 8 election, and opposition to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 1961. Therefore, there is not much research and interest in the Christian social movement from 1945 to the end of the 1960s after liberation. Although it was forgotten due to ideological issues during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Korean War, the Christian social movement to fundamentally solve rural problems, which wa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our people at the time, emphasized the practice of Christian values, unlike the Christian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70s. The important task of Korean Christianity in today's society, which has many challenges to solve, is to present new Christian values and ethics beyond the division and confrontation prevalent in our society through historical research and ethical evaluation of the Christian social movement of this period.

**Key words:** Kang Seong-Gab, Kim Yong-Gi, Yoo Jae-ki, Ryu Dal-yeong, Grundtvig, Christian Values

---

## I. 들어가는 말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구한말(舊韓末) 근대화에 앞장서서 교육과 문명개화, 민주주의의 도입과 확산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일제강점기 3·1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등 탄압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한다. 해방 이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라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기독교계의 보수는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원칙 아래에서 해방 이후 기독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건국절 논쟁과 국정교과서 논쟁 등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건국(建國)’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기여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의 기독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를 이유로 부정적이었으며 참여하지도 않았기에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다.<sup>1)</sup> 기독교계의 진보는 남북의 분단과 대한민국 ‘단독정부(單獨政府)’ 수립,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 대체로 침묵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대한 특별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3·1운동 이후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기여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계의 보수는 대한민국 건국과 한국전쟁을 통해 김일성의

1)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2009년 4월 ‘한국교회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와 한국교회사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역사 교과서와 기독교, 공정하게 서술되었는가?』라는 책을 출간하였고,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해방 이후 한국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역할 연구 및 한국 현대사회 관련 기독교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과제명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해방공간과 기독교 1, 2』, 『해방과 대한민국 독립』 등의 연구 결과물을 출간하였다.

공산화(共産化) 야욕을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킨 이승만과,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 정권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다. 기독교계의 진보는 친일 청산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분단과 독재 등을 이유로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며 민주화를 더욱 강조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주장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친일(親日)과 종북(從北)’의 분열과 대립은 이러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일반적으로 기독교내의 진보와 보수의 구분은 1930년대 들어서 기독교내의 신학적 대립과 갈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기독교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1961년 5·16쿠데타를 계기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와 대응에 따라 보다 분명하게 나뉘게 된 것으로 이해한다. 1960년 4·19혁명 이후 1960년대를 통해 기독교계는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민족사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 식민통치에 굴복한 결과로 생겨난 신앙의 비정치화를 불식하고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정치에 관하여도 발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sup>3)</sup> 기독교계는 4·19혁명의 충격에 잠에서 깨어나 반성을 시작했으나, 신학적 성찰의 부족으로 1961년 5·16쿠데타에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했지만 1964년 한일협정 반대운동, 1967년 6·8부정선거 규탄, 1969년 3선개헌 반대운동 등을 거치면서 진보와 보수로 나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4)</sup> 따라서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4·19혁명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인식이 일반적이었기에 해방 이후 1960년대

2) 성한용, (2022년 10월 16일), 친일이나 종북이나.. 그 끝없는 역사 전쟁,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2805.html>, 2022년 12월 9일 접속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87), 간행사 ii.

4)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 (서울: 북코리아, 2009), 111.

까지 한국 기독교의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근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독교의 정치참여와 기독교 사회운동의 관계 및 구분, 개념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은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내의 보수와 진보라는 입장에 따라 역사 이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당시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였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 농촌운동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검토의 필요를 주장하는 시론(試論) 성격의 글이라는 분명한 한계를 갖는다.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의미가 있다. 기독교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오늘,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를 제시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이 시기의 역사와 윤리적 평가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 II.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의 기독교 사회운동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 새나라의 중요한 과제는 일제의 수탈로 고통을 받고 있던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식민지 노예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 건설의 바탕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해방을 맞은 기독교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할 만한 힘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실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우리 민족의 대부분이 농민이었기에 당시 우리나라의 문제는 대부분

5) 위의 책, 54-59.

농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농촌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였다. 따라서 농촌운동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사회·교육 문제 등을 포괄하는 시대적 과제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 농촌운동의 경험을 갖고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sup>6)</sup> 이른바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기독교는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나, 사실상 우익의 정치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안동교회 담임목사로 있던 김광현<sup>7)</sup>은 정교분립주의(政教分立主義)를 취(取)해 일체 정치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었으나, “안동이 인민공화국 천지가 되어 버리는 것을 좌시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교회가 직접 정치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더라도, 나 개인적으로는 무엇인가를 나서서 하기로” 결심하고, 우익단체 조직에 앞장섰다.<sup>8)</sup> 기독교계 내에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기에 1930년대 장로교 농촌운동의 주역이었던 배민수는 공산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만을 주장하였고,<sup>9)</sup> 일제강점기 농촌운동에 앞장섰던 김활란은 해방 이후 기독교 농촌운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교육행정가로 활동했다.<sup>10)</sup>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농촌운동이 해방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이어지지

- 
- 6)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서울: 선인, 2020), 38-41.
- 7) 김광현(1913-2006)은 1941년 고베중앙신학교를 졸업하고 초량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하였으며, 1943년 1월 초량교회를 사임하고 경북 안동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안동교회 원로목사, 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을 역임했다.
- 8) 김광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서울: 성서교재사, 1993), 61.
- 9) 1938년 6월 일제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배민수는 해방이 되자 “미군정 통역관의 신분을 십분 활용하면서 우익진영의 반공주의 국가건설노선을 최전선에서 실천하였다. 그것은 곧 이승만을 지지하는 단정수립운동이었고, 동시에 이승만을 신국가의 통치자로 옹립하는 운동”에 앞장섰다. 방기중, 『襄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211.
- 10) 해방 후 김활란의 활동에 대해 김옥길은 “본디 농촌운동에 헌신할 마음을 단단히 가지셨던 분이지만 한 시대의 요청이 그 분을 교육자로, 대학행정의 책임자로, 이화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사시게 했다”고 설명했다. 우월문집편집위원회 편, 『又月文集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vi.

못했기에, 이 시기의 기독교 농촌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김용기의 이상촌 운동, 유재기의 기독교흥국형제단, 강성갑의 농촌교육운동은 의미가 있다. 이들의 농촌운동은 일제강점기 기독교 농촌운동의 맥을 잇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이들의 실천은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농촌운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들은 농촌의 발전과 진흥이 해방된 새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했기에 농촌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일제강점기 기독교 농촌운동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던 덴마크 그룬트비의 실천이었다. 신흥우, 김활란 등 기독교 지도자들은 1928년 예루살렘에서 개최된 국제선교협의회에 참석한 이후 덴마크를 시찰하고 조선 농촌의 성공 모델로 덴마크와 그룬트비의 실천에 주목했으나 한계가 분명했다.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농촌운동은, 체제 내에서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내부적 역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점차 농촌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나,<sup>11)</sup> 해방된 새나라에서의 농촌운동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새나라 건설을 지향(志向)하는 기독교 사회운동이었다.

김용기, 유재기, 강성갑은 덴마크를 “「한국」 농촌의 갱생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덴마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모범적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다.<sup>12)</sup>

그룬트비 선생은 축산을 장려하거나 협동조합을 조직한 자는 아니다. 국민 고등학교를 직접 설립한 자도 아니다. 그는 덴마크의 종교를 개혁한 자요, 새로운 교육을 창안한 자요, 덴마크 국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시(詩)를 쓰고 북유럽신화(北歐神話)를 쓰고 덴마크 역사를 쓰고, 덴마크 국어를

11)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88-93.

12) Holger Begtrup, *The folk high school of Denmark development of a farming community*, 이기백 역, 『새역사의 창조: 덴마크國民高等學校와 農村社會의 發展』(서울: 東洋社, 1959), 5.

찾아내고, 강단에서 웨치고, 국회에 들어가 새로운 법을 만든 자이다.<sup>13)</sup>

이들은 그룬트비를 “감감하고 차디찬 덴마크에 빛을 주고 열을 준 덴마크의 태양이다. 이 열에 삼백만 덴마크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했다고 평가하였고, 자신들이 한국의 그룬트비가 되고자 했다.<sup>14)</sup> 덴마크의 부흥을 이끌어 낸 그룬트비의 실천을 ‘덴마크’의 기독교인이 ‘덴마크’라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들의 실천은 ‘조선’의 기독교인이 ‘조선’이라는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할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한계는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덴마크와 그룬트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대안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상촌 건설을 꿈꾸며 1931년 봉안 이상촌을 개척했던 김용기는 해방을 맞아 당시의 농촌이 너무나도 피폐해 있으며 농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나라는 존립할 수 없고, 국가의 부강은 오직 농촌의 발전에서 온다고 지적하였다.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의지와 정신을 갖춘 농사꾼이 필요하다. 교육과 계몽을 통해 농사꾼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해방 직후인 1946년경 봉안 이상촌을 방문했던 이일선은 우리도 덴마크처럼 “농민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며,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자 『이상촌』을 출간하였다.

그들은 一世紀前 丁抹國이 쓸어져 가던 殘酷한 境遇와 環境에서 「하나님을

13) 韓丁協會 編, 『그룬트비傳』 (서울: 조알사, 1956), 11-12.

14) 위의 책, 12.

15)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67-169.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祖國을 사랑하자 흙을 사랑하자」는 標語를 걸고 開拓의 광이를 들어 오늘날의 農民의 平和의 나라를 建設하여 各民族으로 하여금 부럽게 한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信念 가운데서 以上の 네가지 사랑의 標準을 세우고 十二年前부터 同志가 모여 훌륭한 理想村을 만들고 있었다.<sup>16)</sup>

김재준은 이 책이 “순결한 기독교 청년들의 농촌으로 향한 십자군적 운동을 전개하는데, 큰 봉화가 될 줄”로 생각한다고 『이상촌』의 서문을 썼다.<sup>17)</sup> 김용기는 해방된 당시를 덴마크와 같은 이상국을 건설할 수 있는 호기로 여기고 자신의 이상촌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농민동맹을 창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해방공간의 혼란 속에서 농민동맹 등의 활동으로 두 차례나 투옥당했던 김용기는 이상촌 운동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였다. 김용기는 1946년 10월 봉안을 떠나 경기도 은평군 구기리 삼각산 기슭의 과수원 13,000평을 매입하고 개척을 시작했다. 농민들에게 덴마크처럼 국민정신의 개혁이 필요하며, 건국의 기초로서 농촌진흥을 주장하였다. 삼각산 농장에는 한경직, 박형룡, 김재준, 강원룡, 조향록, 여운형, 류영모 등이 방문하였다.<sup>18)</sup>

일제강점기에 배민수 등과 함께 장로교 농촌운동에 앞장섰으며 1938년 기독교농우회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던 유재기는, 일제강점기에 그가 추진했던 농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농촌운동을 구상하였다.<sup>19)</sup> 농촌운동의 실천을 위해 대구를 떠나 서울로 상경한 유재기는 적산(敵産)건물을 인수하여 농촌운동의 물질적

16) 이일선, 『理想村』 (서울: 農村文化社, 1947), 7-8.

17) 위의 책, 6.

18)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원주: 가나안농군학교, 2014), 80-89.

19)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264.

토대를 마련하였다. 유재기는 1945년 12월 “기독교정신으로 국가건설과 부흥”을 목표로 기독교홍국형제단(基督教興國兄弟團)을 결성하였다. 1946년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기독교홍국형제단은 합태영을 총재로 하고 유재기는 부총재로 취임하였다. 기독교홍국형제단에는 국가건설 차원에서 농촌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유재기의 구상에 동의한 합태영, 김재준, 배은희, 박학전 등 기독교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였으며, 체계적인 농촌운동을 실천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기독교홍국형제단 지부를 결성하였다.<sup>20)</sup>

유재기는 당시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문제 중의 하나였던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토지개혁을 통한 경자유전(耕者有田)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토지개혁을 시작으로 농촌경제와 농민생활의 자립을 위한 협동조합을 건설하고자 했다. 유재기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건설에 나서는 것은 모든 한국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고, 그리스도의 박애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한 복음주의 이념과 경자유전의 원리에 기초한 자립적 공동체인 ‘예수촌’을 건설하고자 했다.<sup>21)</sup> 유재기는 농촌재건을 위한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애신(愛神), 애인(愛人), 애토(愛土)정신에 기초한 조선농민복음학교를 설립·운영하였다. 조선농민복음학교에서는 철저한 기독교 신앙교육과 성경적 바탕 위에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신구약 개론, 기독교사상, 예수촌론 등을 필수과목으로 강의하였다. 조선농민복음학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1947년 제1회 농민복음학교가 개설된 이래 1949년 8월까지 14회에 걸쳐 학생 수는 모두 448명이었으며 수천여명의 청강생이 있었다. 수료생들은 농복학우회(農福學友會)를 조직하고 농촌

20) 위의 논문, 264-267.

21) 위의 논문, 268-272.

지도자로 활동했다.

유재기는 기독교흥국형제단을 통한 농촌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1946년 1월 『흥국시보(興國時報)』를 창간하였다. 『흥국시보』 사장은 함태영, 주필은 김재준, 편집은 유재기가 맡았으며, 타블로이드 판 8면의 활판 인쇄물로 월 2회 5,000부 이상을 발행하여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흥국시보』에는 기독교흥국형제단의 활동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의 소식과 세계와 국내정세 등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남북의 분단 상황에서도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대해 논의하고 기독교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등 기독교와 사회주의에 관한 연재 기사를 수록하였다.<sup>22)</sup>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흥국시보』 발간과 조선농민복음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농촌운동에 전념하던 유재기는 1949년 7월 숨을 거두었다. 1977년 주태익이 쓴 유재기 평전의 제목은 『이 목숨 다 바쳐서-한국의 그룬트비히 虛心 劉載奇傳』이었다.

유재기 평전을 쓴 주태익은 1951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강성갑이 설립한 경남 김해 한얼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면서 희곡을 쓰고 연극반을 지도했다.<sup>23)</sup> 한얼중학교를 설립한 강성갑은 한국전쟁 중인 1950년 8월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당했으나, 1950년 10월 군법회의를 통해 가해자였던 진영지서장이 강성갑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되었으며, 1954년 5월 함태영 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얼중학교에서 추모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다.<sup>24)</sup> 연극반 학생들은 주태익이 쓴 희곡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떠러져」를 공연하는 등 강성갑을 추모하였으나,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당한 강성갑은 오랫동안 잊혀졌다.<sup>25)</sup> 해방공간 경남 진영에서 한얼

22) 위의 논문, 276-278.

23) 조향록, “교우 반 세기, 압산 회고” 주대명 외, 『내가 만난 주태익』 (서울: 바위, 1995), 52.

24) 강성갑의 죽음과 재판, 추모행사 등은 홍성표, 『한얼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245-272 참조.

중학교를 설립하고 기독교 농촌·교육운동에 앞장섰던 강성갑의 실천은 청년·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박형규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강성갑을 꼽았다. 해방 후 대립과 갈등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던 박형규의 눈에 비친 강성갑의 실천은 그에게 특별한 것이었다.

해방 후 많은 젊은이들이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나 또한 그러했으나 좌익운동이나 폭력적인 농민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크리스천으로서 갖고 있던 신앙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좌익운동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상황 속에서 나의 눈길을 끈 것이 강성갑(姜成甲) 목사의 기독교 사회개혁 운동이었다. 이분은 덴마크의 사회운동가 그룬트비히(Nikolai F. Grundtvig)를 매우 존경하여 기독교의 복음정신과 농민운동 및 사회정화운동을 결합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개혁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중략) 강 목사는 진영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육운동을 펼쳤다. 농민들이 사람답게 살려면 우선 깨우쳐야 한다며 흠뻑들로 변두리 지역에 학교를 세웠다. 그 학교들이 진영 한얼중학교의 전신이다. 해방 후의 사회적·사상적 혼란 속에서 나는 강성갑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sup>25)</sup>

박형규의 증언처럼 “그때 대학생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강성갑 목사님이 학생들의 희망이자 이상과 같은 존재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 목사님을 의지”하고 따랐다.<sup>27)</sup> 일본 도시사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부산 초량교회의 목사로 있다가 해방을 맞은 강성갑은 경남

25) 심사수, “주태의 선생님과 한얼고등학교 연극반,” 주대명 외, 『내가 만난 주태익』 195.

26) 박형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서울: 창비, 2010), 59-61.

27)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31. 강성갑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김동길, 이규호, 이상철, 정원식, 맹의순 등이 있었다.

재건노회의 서기를 맡아 교회의 반성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좌절한 강성갑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였으나 1946년 3월 진영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을 받았다. 강성갑은 “그 교회에 가서 농촌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진영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46년 8월 복음중등공민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농촌운동을 시작하였다. 강성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혼상제의 폐습을 배격하고 근면과 노동을 권장하였으며, 정치적 갈등으로부터 초월할 것을 부르짖었다. 강성갑은 “좌도 우도 있을 수 없다. 민족중흥의 대도는 일치단결하여 배우고 일하는 것이다.”라든가 “미국도 소련도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맡을 자는 아니다. 우리의 문제는 몇 세대에 걸쳐더라도 우리의 문제로 남는다.”고 주장했다.<sup>28)</sup>

강성갑은 당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응축(凝縮)되어 나타난 농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얼중학교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교육운동에 앞장섰다. 이러한 강성갑의 실천은 덴마크 그룬트비의 사상을 우리 사회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새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교육개혁 운동이었다. 강성갑은 덴마크를 행복한 나라로 만든 ‘근본이 교육에 있다’고 확신하고, 새로운 나라의 교육방침을 자신이 세워 보겠다는 큰 꿈을 꾸었으며, ‘이웃과 함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였다. 강성갑의 이상과 실천은 진영교회의 교인들과 진영 지역주민들은 물론 교육행정 당국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성갑은 인적·물적 요건 등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교육개혁의 모범을 보이고, 지역의 중등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인가를 받은 정식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강성갑의 학교 설립취지에 공감한 미군정 교육부장 오천석은 재정 등 설립요건을 제대

28)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 논문집』 3 (1968), 266.

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과 의지를 인정하고 한얼중학교 설립을 인가해 주었다. 학교설립 인가는 받았으나 부족한 재정과 자재난으로 교사(校舍)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강성갑은 진영에 많이 있던 양질의 흙을 이용하여 흙벽돌을 구워 직접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진영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강성갑의 노력을 목격하고 교사 신축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육관에 공감하고 교육 실천에 함께 참여했다. 한얼중학교의 교사 신축과정은 당시 건축자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흙벽돌을 사용한 창조적인 자립의 사례로 당국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sup>29)</sup>

강성갑의 교육 실천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목을 받은 것은 노작교육(勞作教育)과 국민신앙(國民信仰)교육이었다. 강성갑은 노작교육의 실천을 통해 교육고등유민(高等遊民)만을 길러내는 맹목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쟁이’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sup>30)</sup> 노작교육은 학생들의 자발적·능동적인 정신 및 신체의 작업을 중심원리로 하여 행하는 교육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실천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성갑은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의식개혁을 목표로, 성서를 ‘국민신앙’이라는 과목으로 가르쳤다. 자기중심적 존재인 인간성의 창조적 변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제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지났기에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31)</sup> 교육학자 허현은 강성갑의 한얼중학교를 지역사회학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하였다. 허현은 강성갑의 실천과 같이 우리 현실에 맞는 지역사회학교 운영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결국은 사회적으로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2)</sup>

29)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218-219.

30) 위의 책, 27-29; 209.

31) 위의 책, 212-214.

32) 허현, “지역사회학교 제6회,” 『새교육』 9-6 (1957), 134.

한국의 근대교육에 앞장섰던 기독교가 해방공간에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해서는, 미군정기의 교육정책과 교육 관련단체를 기독교계가 주도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을 뿐이다. 해방공간에서 이루어진 한국 기독교의 교육운동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며, 관련 연구 또한 많지 않다.<sup>33)</sup>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는 미군정 시기(1945-1948년)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5개교였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60년까지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37개교가 설립되었으며, 1961년부터 1970년까지 중학교 50개교, 고등학교 39개교가 설립되었다.<sup>34)</sup> 이외에도 학교가 부족하여 정규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공민학교와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 등 기독교계의 문해교육(文解教育) 참여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민학교는 1946년 5월 ‘공민학교 설치 요령’이 제정되면서부터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공민학교는 학령을 초과한 미취학자를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과, 성년과, 보수과를 두었으며 실정에 따라 필요한 과만 설치되기도 했다.<sup>35)</sup> 교육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모아 성경과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되었던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도 중요하다. 프랜시스 킨슬러(Francis Kinsler)에 의해 1929년 겨울 평양에서 시작된 성경구락부(Bible Club)운동은 해방 후 남한에서 특히 북한지역에서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많이 조직되었으며 한국전쟁 중에도 계속되었다.<sup>36)</sup> 성경구락부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1953년

33) 홍성표,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42.

34) 박상진,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선교와 신학』 53 (2021), 100.

35) 임송자, 『배움과 좌절의 갈림길, 야학』 (서울: 서해문집, 2017), 41-43.

36)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송실사학』 44 (2020), 142-143.

400개 구락부에서 1955년 전국적으로 696개의 성경구락부와 1,823명의 교사, 7만여 명의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다.<sup>37)</sup>

### III.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에는 전국 각지에서 협동조합 운동, 이상촌 운동 등 자율적인 농촌운동에 앞장섰던 활동가들이 많이 있었다.<sup>38)</sup> 그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대안으로서의 덴마크와 그룬트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고, 기독교의 농촌운동 또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김영환<sup>39)</sup> 등의 주도로 1952년 한정협회(韓丁協會)가 설립되었다. 김영환은 한국전쟁 때 덴마크에서 파견한 병원선<sup>40)</sup>을 방문하여 사령관 카이 해머리크(Kai Hamerich)를 만나 민간 외교단체 설립에 합의하고 선상에서 한정협회 결성식을 거행했다. 우리 측 회장은 윤보선, 총무는 김영환이었고 정준, 김종대, 이영규, 김두만, 조향록, 김신실 등이 참여했다.<sup>41)</sup> 한정협회는 창립 이후 첫 사업으로 덴마크의 농촌실습을 위해 1959

37) 위의 논문, 144.

38)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2009), 271-295.

39) 김영환은 숭실전문학교와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창원교회 목사, 장로회 경남 노회장(1942) 등을 역임하였다. 해방 후 홍국형제단 총무, 홍국시보사 주간, 한정협회 총무 부회장 고문, 한국기독교농촌봉사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40)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덴마크는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먼저 의료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4개의 수술실과 356개의 병상이 구비된 병원선 ‘유틀란드야호’를 한국에 파견했다. 유틀란드야호는 한국전쟁 종전 후 1953년 10월 16일 덴마크로 귀향하기까지 한국에 3회에 걸쳐 총 999일간 파견되었으며, 4,981명의 UN군인뿐만 아니라 수만명의 한국 민간인을 치료해 줌으로써 한국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외교부, (2016년 6월 2일), 한국과 덴마크의 특별한 인연 병원선 ‘유틀란드야호’ 기념관 개관,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0257&page=2](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0257&page=2), 2022년 12월 9일 접속)

년 4월 농촌 청년 8명을 선발하여 덴마크에 파견했다.<sup>42)</sup>

김교신의 양정고보 제자로 덴마크 농촌운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던 류달영은, 1951년 1·4후퇴의 피난길에 대구에서 덴마크의 부흥사를 정리하여 1954년 『새 歷史를 爲하여: 덴마크의 教育과 協同組合』을 출간하였다. 류달영에게 덴마크는 “약 백년전에 불모의 황무지 위에서 현명한 지도자들의 교육과 국민들의 불굴의 의지와 협동으로 기적 같은 세계 최고의 민주 복지 국가를 건설”한 나라였다.<sup>43)</sup> 류달영의 책은 인쇄도 장정도 보잘 것 없었으나, 놀라운 속도로 팔려나가 몇 해 동안에 이십육 판을 거듭하였으며 농민 운동의 바이블로 애독되었다. 이 책의 영향으로 류달영은 5·16쿠데타 이후 재건국민운동본부장이 되었다.<sup>44)</sup>

김용기는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삼각산 농장을 정리하고, 한국전쟁 중인 1952년 5월 평소 뜻을 같이하던 강태국, 한진교 등과 함께 경기도 용인군 원삼면 사암리의 황무지 6만평의 개간에 나섰다. 김용기는 에덴향 생활현장을 제정하는 등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 나가고자 노력했다.<sup>45)</sup> 김용기는 에덴향에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와 같은 농민학교를 세워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모범적인 농장을 건설하여 한국의 농민에게 모델로 제공하고자 했다.<sup>46)</sup> 김용기는 먼저 흙벽돌 교회를 세웠고, 강태국, 유호준 등과 함께 용인복음고등농민학원을 설립하였으나, 학교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규가 발생하였다. 용인 에덴향을 떠난 김용기는 1954년 11월 경기도 광주군 동부면 풍산리로 이주하여 가나안 마을의 개척을 시작하였다. 새

41) 한정협회 편, 『덴마크』 (서울: 사림원, 1983), 20;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서울: 보이스사, 1985), 209-210.

42) 한정협회 편, 『덴마크』, 67.

43) 류달영, 『소중한 만남: 나의 인생노트』 (서울: 숲, 1998), 228-229.

44) 김홍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상상의 숲, 2021), 175-177.

45)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93-101.

46) 위의 책, 93.

로운 개척지에서 김용기는 가나안교회를 설립하였고, 청소년들을 위한 중등 교육과정의 소생학교(蘇生學校)를 설립하였으며,<sup>47)</sup> 농장을 개척하여 가나안복음농도원(福音農道園)으로 명명(命名)했다.<sup>48)</sup>

해방 후 다시 내한한 선교사들은 남북의 분단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기독교 선교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남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선교과제를 찾기 위해 1949년 10월 대전에서 기독교연합봉사회를 설립하였다. 장소는 대전 근교(충남 대덕군 회덕면 중리)로 결정했으며, 복장로회 선교사인 안두화(Edward Adarms)가 이사장, 동생인 안두조(George Adarms)가 총무를 맡았다.<sup>49)</sup> 선교사들의 연합단체로 설립된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사회사업 및 농촌사업 분야의 연합사업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1950년 4월 첫 사업으로 복음농민학교를 설립하고 시범농장을 마련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다.<sup>50)</sup> 기독교연합봉사회는 일제강점기 장로교회의 농촌운동을 주도했던 배민수와 결합하여 1953년 6월 배민수를 농민학원 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1954년 9월 기독교농민학원을 설립하였다.<sup>51)</sup> 기독교농민학원의 첫 사업은 1954년 9월 전국농촌교역자수양회였으며, 12월에는 1개월 단기과정으로 농촌지도자강습회를 개최하였고, 1956년 3월부터 8개월 과정의 장기강습을 시작하였다.<sup>52)</sup> 농민학원의 수업 과정에는 성경 과목이 개설되어 있었으며,<sup>53)</sup>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자(愛神), 우리는 농촌을 사랑하자(愛農), 우리는 노동을 사랑하자(愛勞)”

47) 위의 책, 121-124.

48) 위의 책, 137-139.

49) 연규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 1999), 40-41.

50)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2010), 112.

51) 위의 논문, 114-119.

52) 위의 논문, 120-122.

53) 위의 논문, 123.

는 삼애주의(三愛主義)에 바탕을 두고 훈련을 실시하였다.<sup>54)</sup> 이외에도 1957년 캐나다연합교회 선교사들이 전북 이리에서 농촌선교의 일환으로 마을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높은 뽕 농장을 설립하고 협동조합 운동, 농촌문고 운동, 보건사업, 우량 종축 종자보급, 농사기술 전수를 위한 강습회 등을 실시하였다.<sup>55)</sup>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고아원 등 기독교의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이 이루어졌으나 충분한 연구와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sup>56)</sup> 1949년 4월 아펜젤러 등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세계봉사회가 설립되어, 해방 후 일본과 중국으로 강제 이주되었다가 귀국하는 해외동포들의 구호사업과 한국전쟁 기간 중에 긴급구호 활동으로 이재민 구호활동과 전쟁 미망인을 위한 탁아사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으로 인해 부상당한 이들을 돕는 의수족(義手足)사업을 비롯하여 결핵퇴치 사업, 농촌개발 사업, 가축도입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sup>57)</sup> 이외에 기독교연합봉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1953년 8월 한국인 수족절단자 직업교도원을 설치하고 수족절단자 직업교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고아들을 돌보는 구세군후생학원(1953년 9월), 충남영아원(1955년 5월), 결핵환자 요양을 위한 결핵요양원(1954년 2월)등을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sup>58)</sup> 이외에도 김교신과 이승훈 등의 영향을 받은 이찬갑이 주옥로와 함께 설립한 풀무

54) 위의 논문, 125.

55) 이태영, “기독교농촌개발원의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농촌과 목회』 15 (2002), 197-198. 높은뽕 농장은 1978년 기독교장로회 총회로 이관되었으며, 기독교농촌개발원이 되었다.

56) 한규무, “건국과 기독교사회사업,” 박명수 외,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2014), 243-329에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기독교 사회사업의 실태와 공과(功過) 및 ‘건국’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갖는 성격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7) 연규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2003), 34-37.

58) 연규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59-60.

학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찬갑은 오산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덴마크 그룬트비의 사상을 ‘그 나라의 역사와 말로 요약하여,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를 모델로 1958년 중학교 과정의 고등국민학교로 풀무학교를 설립하였다.’<sup>59)</sup>

#### IV. 196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

해방 이후 한국 기독교의 사회참여는 일반적으로 4·19혁명 이후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독교계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후반의 급변하는 한국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나 신학적 성찰과 발언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4·19혁명에 대한 신학적 성찰 역시 부족했으며, 5·16 쿠데타에 대하여는 신학의 부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1963년 3월 박정희의 민정이양(民政移讓) 의사 번복에 대해 ‘우리’를 표명했던 한국기독교연합회의 공개서한 이외에는 군사정권의 장기화를 논한 기독교계의 발언을 찾기는 어렵다.<sup>60)</sup> 1964년 한일국교 정상화 회담이 진행되자 기독교계는 회담 자체가 굴욕적이며, 민족적 위기라고 판단하고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1965년 4월 한국기독교연합회는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한국교회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일 기본조약이 굴욕적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일협정이 조인(調印)된 직후인 1965년 7월에는 김재준, 한경직, 강신명, 강원룡, 함석헌 등 목사 및 기독교계 인사 215명이 연서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국민들의 의사에 대한 무력

59) 풀무학교의 근대 교육사적 의의 등에 대하여는 정해진, “풀무학교의 근대 교육사적 의의,” 『한국교육학연구』 19-3 (2013), 233-268 참조.

6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44-45.

탄압의 중지, 부정부패의 일소와 국민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국내 정치의 쇄신 등을 요구하였다. 1965년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교회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기본조약 비준 반대의 뜻을 같이하였으나,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하였다.<sup>61)</sup>

기독교계는 1960년대 후반기를 통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르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참여에 대해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한국기독교연합회는 1967년 6·8총선에 나타난 부정선거에 대하여 「6·8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문제가 아니요, 국민주권에 대한 시원적(始原的)인 침해”라고 주장하는 등 국민주권의 침해행위에 대한 경고와 저항을 시작하였다.<sup>62)</sup> 6·8부정선거로 재집권에 성공한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 진보세력은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1969년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위원장에 김재준을 추대하였고, 염광회를 조직하고 개헌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다. 기독교 진보세력과는 달리 보수적 기독교 인사들은 3선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을 둘러싸고 기독교내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sup>63)</sup>

1960년대의 기독교 학생운동은 기존 교회의 무력함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대학 사회에서부터 시작된 기독교 학생운동의 자기반성과 새로운 모색은 개교회(個教會)의 대학생회에도 파급되었다.<sup>64)</sup> 한국학생기독교운동협의회(KSCC)에 속한 단체들을 통합하여 1969년 한국

61) 위의 책, 47-48.

62) 위의 책, 51-52.

63)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92-94.

64)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68-74.

기독교학생총연맹(KSCF)이 출범하였으며, 학생사회개발단운동을 시작했다.<sup>65)</sup> 학생사회개발단 운동은 그간 복음주의적, 교회 중심적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구체적인 실천 내용과 명확한 사회의식을 갖춘 운동으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66)</sup>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독교의 산업전도와 도시빈민운동이 시작되었다. 기독교의 산업전도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세 확장의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노동문제, 도시빈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1968년 연세대 도시문제연구소가 창립되었으며, 1970년대의 도시산업선교로 이어졌다.

이외에 기독교 사회운동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1960년대 기독교의 농촌운동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새마을운동을 담당했던 류태영은, 박정희가 주도했던 경제발전의 배경에 “한국 역사상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정신 개혁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새마을운동이 있었으며, 이 운동에 기독교 정신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핵심 참모들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이들은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부흥시킨 선진 복지국, 덴마크를 그 기본 모델”로 했다는 것이다.<sup>67)</sup> 박정희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평가와 논의가 분분할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과 기독교 농촌운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구된 것은 없으나, 1950년대에 이어 1960년대에도 기독교의 농촌운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용기의 가나안농군학교는 1962년 2월 광주 군수가 추천한 농촌지도자 29명의 교육으로 시작되었다. 1962년 2월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65) 위의 책, 75-84.

66)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1960-1987』, 102-103.

67) 류태영, “새마을운동의 발상과 기독교 정신,” 손봉호 외,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222.

이었던 박정희가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하여 교육 중이던 학생들을 격려하였다.<sup>68)</sup> 박정희의 가나안농군학교 방문 이후 읍·면장, 농촌지도자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졌으며, 김용기는 서울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설교하였고, 전국을 순회하며 영육생활부흥회라는 이름의 부흥회를 개최하였다.<sup>69)</sup> 김용기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농촌운동에 바탕을 둔 금욕적 정신운동이었으며, 후일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있다.<sup>70)</sup>

연구가 필요한 것은 기독교 농촌운동과 재건국민운동의 관계이다. 박정희는 5·16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승공(勝共) 민주 이념의 확립, 내핍생활(耐乏生活)의 려행(勵行), 생산 및 건설의식의 증진, 국민도의(國民道義)의 앙양(昂揚), 정서관념(情緒觀念)의 순화(醇化), 국민체위(國民體位)의 향상” 등의 실천 요강을 달성하기 위해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립했다.<sup>71)</sup> 박정희의 거듭된 요청을 받은 류달영은 유진오의 뒤를 이어 1961년 9월 재건국민운동 본부장에 취임하였다. 류달영에게 덴마크의 그룬트비는 신앙의 대상에 가까웠으며 덴마크는 이상(理想)이었으나, 덴마크와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남북의 이념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동양의 덴마크를 이 국토에 건설해보겠다는 정열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한국의 그룬트비의 구실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나의 숙소에는 1956년에 덴마크에서 사가지고 온 대형의 그룬트비 사진을 걸어 놓고 출근 전에는 한 번씩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집을 나섰다. 국민운동은 단순한

68)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139-143.

69) 위의 책, 145-150.

70)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244.

71)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국민운동: 2주년의 발자취』 (서울: 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16.

덴마크의 흉내가 아니라 덴마크 부흥의 교육과 협동 사업을 한국화해서 우리나라를 재건하자는 것이었다. 한국과 덴마크가 크게 다른 점은 덴마크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는 일이었지만 한국은 분단된 남북의 처절한 이념전쟁에서 이겨내는 일이었다.<sup>72)</sup>

류달영은 재건국민운동이 형식적으로는 관(官)기구 이지만 실상은 민간운동으로 진행하고자 국민운동본부내에 중앙위원회를 설치하여 김재준, 류영모 등 50여명의 중앙위원을 위촉하였다.<sup>73)</sup> 재건국민운동본부는 1964년 사단법인 재건국민운동중앙회 라는 민간조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재정기반이 취약해져 결국 해체되었다.<sup>74)</sup>

재건국민운동이 시작되자 한국 교회의 농촌운동조직 또한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여 재건을 농촌개발로 정의하고 재건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정협회는 1959년 4월 덴마크 농촌실습을 위해 8명을 덴마크에 파견한 이래, 협회의 주관으로 1962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명의 농촌실습생을 덴마크에 파견하였고, 1962년 9월 제1차 실습생들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덴마크 農業實習記』 제1집을 발간하였다. 덴마크 정부의 초청을 받은 한정협회는 1964년 5월부터 농업기술 교육생 파견을 시작하여, 1970년 5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84명을 덴마크에 파견하였다.<sup>75)</sup> 한정협회는 재건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덴마크 발전사를 연구하고 1963년 5월 귀국한 김영환의 덴마크 시찰 보고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그때만 해도 덴마크 시찰 보고 강연이라면 인기가 매우 높았다. 가는 곳마다 집회는 대성황이었다. 목포, 김천 등 몇 곳은 극장 복도까지 입추의 여지가

72) 류달영, 『소중한 만남: 나의 인생노트』, 255.

73) 김홍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202-203.

74)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242-248.

75) 한정협회 편, 『덴마크』, 67; 72-75.

없었고, 극장 밖에까지 장소가 마련되어 청중을 수용했다. (중략) 가는 곳마다 저녁은 그 지방교회 연합으로, 다음날 오전은 군민을 위해 각각 강연회가 열렸고, 때로는 그 지방 중고등학교의 초청을 받아 전학생을 운동장에 모으고 학교에서 강연회를 가지기도 했다. 그래서 보통 하루 두 세 번씩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다.<sup>76)</sup>

김영환은 1983년 최근까지 모두 741회의 강연을 했으며, 강연한 내용을 정리하여 1968년 『지도자의 고향』이라는 책으로 출판하였고,<sup>77)</sup> 1966년 한국기독교농촌지도자협회(후에 한국기독교농촌봉사회로 개칭)를 결성하여 이사장으로 활동했다.<sup>78)</sup>

류달영이 주도한 재건국민운동에 대하여, 재건국민운동본부를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나름의 플랜을 가졌던 지식인들과 군사쿠데타 세력을 일시적으로 결합시켰던 공간이었으나 그의 스승 김교신과 무교회주의자들이 구상하던 사회의 모습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기독교 사회운동의 실천과 관련하여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sup>79)</sup> 이외에도 한국교회 자체의 힘을 모아 국내외 봉사사업을 전개하고자 1963년 7월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설립되어 재해구호 사업, 질병퇴치 사업과 후생시설 지원사업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sup>80)</sup>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는 기독교계의 봉사사업을 한국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고자 한국기독교연합회에 가입된 예수교장로회, 기독교장로회, 감리교회, 구세군, 성공회의 5개 교파가 주축이 되고, 그 외 대한기독교서회, 대한성서공회, 기독교교육협회

76) 위의 책, 21.

77) 위의 책, 21-22.

78)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259.

79)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우익의 기원』 (홍성: 느티나무책방, 2017), 140-143.

80) 연구홍,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41-45.

등을 비롯한 기독교 연합기관과 송실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을 비롯한 20개 기독교 학교와 세브란스 병원, 안동성소병원 등이 참여하였다.<sup>81)</sup>

## V. 나가는 말

학계의 연구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혀지기도 했으나, 당시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은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음은 분명하다. 강성갑, 김용기, 김영환, 배민수, 유재기, 류달영 등의 실천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 시기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미와 과제를 간략하게나마 정리한다면,

첫째,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특히 1945년부터 1960년까지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의 부족은 “한국 기독교의 과거 청산 문제를 중립적 입장에서 통사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15년은 극적인, 그리고 긴박하면서도 현란할 정도로 흥미진진한 수많은 에피소드들로 구성된 거대한 드라마”였다.<sup>82)</sup>

가장 거칠게 말한다면, 기독교의 역사적·정치적 선택 문제는 (대외적 차원에서) ‘냉전적 반공-친미-분단 체제’의 형성에 대한 기독교 교회들의 기여, 그리고 해방 직후부터 형성된 ‘친일파-미군정-이승만 정권의 동맹’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참여로 집약된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대내적 차원에서) 교회 내부의 갈등 및 권력 투쟁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83)</sup>

81) 위의 책, 45-51.

82) 강인철, “해방 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 청산 문제: 의제 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2006), 69-71.

83) 위의 논문, 71.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평가 없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의 기독교계의 기여를 강조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주장이나,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제시한 꿈에 넘어간 사람들과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 소위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한국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으며, “박정희의 독재가 기독교의 진보와 보수를 가른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진보 기독교계의 주장은 모두 한계가 분명하다.<sup>84)</sup>

기독교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유재기의 기독교 농촌운동과 공산주의자로 몰려 희생당했던 강성갑의 기독교 농촌교육운동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이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기독교계의 진보든 보수든 3·1운동에 앞장섰다는 기독교의 민족운동 참여를 자랑하지만, 사회주의 학생운동단체인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함께 1926년 6·10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연희전문학생회의 민족독립운동은 잊혀졌다.<sup>85)</sup>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사에 기독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진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익환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념의 문제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sup>86)</sup> 부족하

84) 김남식·김동완, 『40년의 벽을 넘어-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 對話-』(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28-29.

85) 홍성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 -연희전문학교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202-205.

86) 문익환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상고이유서에서 “민족주의에 접목된 기독교 신앙으로 잔뼈가 굵어 졌습니다. 동시에 연해주에서 불어 들어오는 사회주의의 바람도 맞아야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맞부딪쳐 소용돌이치는 곳이 바로 제가 자라난 북간도라는 고장일 것입니다. 저의 생애에 세 번 민족주의가 사회주의에 밀리는 것 경험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소학교 6학년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민족애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워진 학교 졸업반 때, 그 학교는 마침내 사회주의자들의 공격 앞에 무너집니다. 그것은 정말 비통한 경험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문익환, 『가슴으로 만난 평양: 문익환, 유원호 변호인단 상고이유서』(서울: 삼민사, 1990), 14.

지만 제주 4·3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주 4·3의 진압을 거부하고 일어났던 ‘여순사건’에 대해서는 손양원의 순교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87)</sup>

역사학계에서는 1979년 10월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1권이 출간된 이래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 이승만 정권을 주제로 현대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6년 1월에는 이러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는 등 한국 현대사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기독교 역사에 대한 연구와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통일문제 등에 대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가 과제”로 남아 있다면,<sup>88)</sup>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평가이다. 남북의 분단과정과 원인에 대한 치열한 논쟁 없이 통일문제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결정한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 및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태도와 입장을 가지고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가 나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역사 이해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진보와 보수의 개념 및 구분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 기독교 사회운동의 모범은 덴마크였다.

87) 여순사건에 관하여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역사에서는 반란군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이 희생당했다고 강조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유호준, 정규오 목사 등의 회고록과 당시 종교위문단으로 현지에 파견되었던 윤을수 신부의 기록 등에는 특별히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전주: 흐름출판사, 2017). 4부 여순항쟁과 기독교 참조.

88) 윤경로, “한국근현대사의 전개와 한국 기독교 수용의 특징과 의의,” 손봉호 외,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57.

많은 사람들이 덴마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는 “백년전의 덴마크 국민들이 국제정세의 악조건과 불모(不毛)의 국토의 이중적인 시련과 잘 싸워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의 낙토(樂土)를 이룩”했기 때문이었다<sup>89)</sup> 일제 강점기 김교신 등 무교회주의자들과 기독교 농촌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덴마크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1970년대 이후 오랫동안 잊혀졌으나, 지난 2014년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출간 등으로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성공한 농업국가’ 덴마크에 대한 관심이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 대한 관심으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면, 그러한 덴마크를 따라 배우고자 오랫동안 노력했던 기독교 사회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일제 강점기에 농촌운동에 앞장섰다는 사실은 연구되어 알려져 있으나, 농촌운동의 경험과 실천할 힘을 갖고 있던 기독교가 해방 이후에 농촌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행복한 나라 덴마크를 만든 것은 기독교 정신에 근거한 그룬트비의 실천이었다. 기독교 사회운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그룬트비를 자임(自任)하며, 그룬트비의 주장을 삼애(三愛)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하고 실천했던 것이다. 기독교 국가였던 덴마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에, 김교신은 그룬트비의 ‘기독교 정신’을 ‘도덕’으로 바꾸어 실천을 강조했지만, 강성갑, 김용기, 유재기 등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운동에 앞장섰다.<sup>90)</sup> 특히 강성갑은 ‘국민신앙(國民信仰)’이라는 이름의 과목을 통해 정규 교과과정에서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고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등 기독교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사회운동에 앞장섰던 것이었다.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의 기독교 사회운동은 뜻한 바를 이루지

89) 임영식, 『덴마크 農業實習記』(서울: 韓丁協會, 1962), 1.

90) 김교신·노평구, 『김교신전집 1: 인생론』(서울: 부키, 2001), 197. 이 글은 “예언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성서조선』 1937년 9월호에 실린 글이었다.

못하고 잊혀졌을 뿐만 아니라 한계 또한 분명하지만, 1970년대 기독교 사회운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 한국의 기독교가 1970년대의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역할과 기여를 했음은 분명하지만, 기독교 민주화운동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즉 “민주화운동에서 보여준 기독교 단체나 인사들의 선언문은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정립하는 데에 있어 보다 역동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단지 기독교의 교리로 운동을 포장하거나 이를 그 안에 편입시킨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하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지도자들 역시 “그 초점이 대부분 정계 재야인사들과 함께 그 운동을 이끌고 탄압받았던 ‘민주화’에 있지 ‘기독교’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단지 “민주화 인사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기독교적 정체성이 좀 더 지켜질 수는 없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는 것이다.<sup>91)</sup>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해방 이후 1945년~1960년대의 기독교 사회운동은 기독교의 정체성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독교적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기독교 사회운동의 실천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앞날을 위해 과거의 역사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역사의 교훈으로 의미가 있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독교계의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넘어서는 기독교적 정체성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윤리적 평가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91) 전명수, “1960-70년대 한국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특성과 한계: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국학연구』35(2010), 354-355.

## 참고문헌

- 강인철. “해방 이후 4·19까지의 한국교회와 과거청산 문제: 의제설정을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2006), 67-102.
-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 우익의 기원』. 홍성: 느티나무책방, 2017.
- 김광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서울: 성서교재사, 1993.
- 김교신·노평구. 『김교신 전집 1; 인생론』. 서울: 부키, 2001.
- 김권정. “해방 후 유재기의 국가건설운동과 농촌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2012), 255-294.
- 김남식·김동완. 『40년의 벽을 넘어-보수신학자와 진보운동가의 역사 對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명배. 『(해방 후)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사: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1960-1987』. 서울: 북코리아, 2009.
- 김영미. 『그들의 새마을운동』. 서울: 푸른역사, 2009.
- 김영환. 『한 민족의 가슴에 타는 불』. 서울: 보이스사, 1985.
- 김용기. 『가나안으로 가는 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김재준. 『金在俊 全集. 13, 범용기(1): 새 역사의 발자취』. 서울: 長空 金在俊牧師 기념사업회, 1992.
- 김홍근. 『류달영 박사의 생애와 사상』. 서울: 상상의 숲, 2021.
- 류금주. 『가나안농군학교(원주)40년사』. 원주: 가나안농군학교, 2014.
- 류달영. 『소중한 만남: 나의 인생노트』. 서울: 솔, 1998.
- 문익환. 『기슴으로 만난 평양: 문익환, 유원호 변호인단 상고이유서』. 서울: 삼민사, 1990.
- 박명수·안교성·김권정 외 엮음. 『대한민국 건국과 기독교』. 성남: 북코리아, 2014.
- 박상진. “해방 이후 기독교사립학교의 팽창 연구.” 『선교와 신학』 53 (2021), 89-125.
- 박형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파주: 창비, 2010.
- 방기중. 『裴敏洙의 農村運動과 基督教思想』.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9.

-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편. 『스승의 길』.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4.
- 손봉호·조성표 편. 『한국 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심진구. “향토교육의 선구자 강성갑에 관한 사례연구.” 『인천교대논문집』 3 (1968), 261-282.
- 연규홍. 『기독교연합봉사회 50년사』.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 1999.
- \_\_\_\_\_.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4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2003.
- 우월문집편집위원회 편. 『又月文集 1』.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9.
- 윤은순. “한국 기독교의 성경구락부 운동 전개와 학교로의 전환.” 『송실사학』 44(2020), 141-163.
- 이일선. 『理想村』. 서울: 農村文化社, 1947.
- 이태영. “기독교농촌개발원의 지나온 길과 가야할 길.” 『농촌과 목회』 15(2002), 196-204.
- 임송자. 『배움과 좌절의 갈림길, 야학』. 파주: 서해문집, 2017.
- 임영식. 『덴마크 農業實習記』. 서울: 韓丁協會, 1962.
- 재건국민운동본부. 『재건국민운동: 2주년의 발자취』. 서울: 재건국민운동본부, 1963.
- 전명수. “1960-70년대 한국 기독교 민주화운동의 특성과 한계: 종교사회학적 접근.” 『한국학연구』 35 (2010), 329-359.
- 주대명 외. 『내가 만난 주태익』. 서울: 바위, 1995.
-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전주: 흐름출판사, 2017.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인권위원회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 ( I )』.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 인권위원회, 1987.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편.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서울: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983.
- 한규무. “1950년대 기독교연합봉사회의 농민학원 설립과 운영.”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2010), 109-132.
- 한석정. 『만주모던: 60년대 한국 개발체제의 기원』.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6.
- 한정협회 편. 『그룬드비傳』. 서울: 조알사, 1956.
- \_\_\_\_\_. 『덴마크』. 서울: 사람원, 1983.
- 허 현. “지역사회학교 제6회.” 『새교육』 9-6 (1957), 127-135.
- 홍성표. “기독교 학교 학생들의 민족운동과 사회주의-연희전문학교 학생회를 중심

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8 (2019), 187-224.

\_\_\_\_\_. 『한얼의 밑알이 땅에 떨어져』. 서울: 선인, 2020.

Holger Begtrup. *The folk high school of Denmark development of a farming community*. 이기백 역. 『세역사의 창조: 덴마크國民高等學校와 農村社會의 發展』. 서울: 東洋社, 1959.

논문투고일: 2022년 11월 11일

심사개시일: 2022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12일

---

• 국 문 초 록 •

---

1960년 4·19혁명의 충격으로 반성을 시작하게 된 기독교계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한일협정 반대, 6·8 부정선거 규탄, 3선개헌 반대운동 등을 통해 진보와 보수로 나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기에, 해방 이후 1945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많지 않다. 남북의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념의 문제 등으로 잊혀졌지만 당시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던 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기독교 사회운동은 이 시기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1970년대 기독교 민주화운동과는 달리 기독교적 가치의 실천을 더욱 강조한 것이었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과제는, 이 시기의 기독교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독교적 가치와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강성갑, 김용기, 유재기, 류달영, 그룬트비, 기독교적 가치

---